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⑩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 (5)- 욕실과 동사(東司)

겨울엔 5일마다 여름엔 매일 목욕

욕실(浴室)

욕실은 선종사원의 공동 목욕탕으로서 7당 가람 가운데 하나이다. 위치는 오른쪽 산문 끝에 있는데 어떤 사찰에는 반대편인 승당 아래나 또는 뒤쪽에 있는 곳도 있어서 욕실 위치는 일정하지 않다. 급수 조건을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욕실을 '선명(宣明)'이라고도 한다. '깨끗함' '상쾌함'을 뜻하는데, 몸에 묻은 때(垢)는 욕실에서 제거하고 마음의 때(塵)는 좌선당에서 제거하여 항상 안과 밖을 선명(宣明)하게 했던 것이다. ??능엄경?? 5 권에는 발다바라 존자가 16명의 보살들과 함께 욕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몸과 마음이 아주 선명해졌다는 법화(法話)가 있는데, 중국 선원에서 욕실을 선명이라고 하고 그 상단에 발다바라 존자상을 모시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또 욕실을 '향수해(香水海)'라고 한다. '향수의 바다'라는 뜻인데, 역설적이지만 재미있는 이름이다. 경산사·영은사·천동사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 일본 영평사는 여전히 '향수해(香水海)'라는 편액을 붙이고 있다.

선종사원에서 목욕일은 계절에 따라 좀 다르다. <취수백장정규>를 보면, 동절기에는 4·9·14·19·24·29일로서 5일마다 한 번씩, 하절기에는 매일 목욕을 했다(寒月五日一浴, 暑天每日沐浴). 소탈해야 할 선종사원에서 겨울에는 5일에 한 번, 여름에는 매일 목욕을 한다는 것은 좀 낯선 생각이 든다. 수백 명이 생활하는 선원에서 5일에 1회도 많지만, 특히 하절기에 매일같이 목욕을 하자면 급수 시설이 원활해야 할 것이고, 목욕탕 소임자인 욕주(浴主) 밑에 적어도 10여 명 이상의 욕주행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대도 아닌 천 년 전 그 옛날에 왜 이렇게 매일같이 목욕을 했을까? 그리고 참선은 언제 한다는 말인가? 자료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7월 항주에 있는 영은사·천동사·아육양사 등 송대의 대표적인 선종사찰을 답사하면서 실감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후와 관련이 깊는데, 그때 항주·영파·상해 일대의 온도는 무려 섭씨 37-38도나 되었다. 게다가 습도는 바다와 같을 정도로 80% 이상이었으며, 차에서 내려 10분만 지나면 런닝셔츠와 티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였다. 땀이 아닌 물이 졸졸 흘렀는데, 이런 무더위는 난생 처음이었다. 끈옥스러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겪을 수 없는 신기한 체험이기도 했다.

그런데 안내자의 말은 더욱 기가 막혔다. "아직 7월 초라서 그렇지, 한여름이 되면 보통 섭씨 44도 이상이 되고 게다가 이 지역은 1년 가운데 약 230일 정도가 비가 온다"는 것이었다. 이토록 심하게 고온다습한 환경에선 아무리 수행자라도 매일 목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루라도 거른다면 선당이 온통 땀 냄새일 것이고, 또 몸이 끈적끈적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 참선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을 것이다. 여름 목욕을 일한(汗汗, 땀을 씻다)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샤워와 같은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래 해인총림을 본다면 목욕과 삭발은 포살일(보름날과 그믐날) 하루 전인 음력 14·29일에 했고, 계절 구분 없이 보름에 한 번씩 했다. 이것은 율장 사본울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아마 고려·조선시대도 같았을 것이다. 사본울에서는 '목욕은 반월(15일)에 한 번 하고 그 이상은 겨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욕실은 동사(東司), 화장실, 승당(혹은 재당=식당)

과 함께 삼묵당(三默堂)이라고 한다. 목욕하는 것을 '개욕(開浴)'이라고 하는데, '욕실의 문을 열다'는 뜻이다. 목욕은 점심 공양 직후에 시작하는데 종(鐘)과 판(飯)을 쳐서 곧 목욕이 시작됨을 알리고, 이어 '개욕(開浴)'이라고 쓴 폐(牌)를 승당 앞에 건다. 공지 사항을 알리는 방법이다.

목욕을 하는 차례도 정해져 있는데 당·송·원대까지는 먼저 수행승(衆僧)들이 하고, 다음에는 종두(鐘頭)·채두·수두(水頭) 등 하급 소임자 스님이 하고, 그 다음에는 행자들이 한다. 그리고 다음에 주지와 6지사 등으로 대부분 상급 소임자일수록 맨 나중에 한다. 대중을 우선시켰는데, 명대에 와서는 주지·6두수·6지사·단월거사·수행승(대중) 순으로 완전히 역전되었다. 주지 등 상급 소임자가 우선되었는데, 선불교의 수행정신이 쇠퇴하고 또 선문화도 관료화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욕실 내에서 예법은 매우 엄숙하고 까다롭다. 잠단을 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함부로 물을 끼얹지 말 것, 탕(湯=鑊) 안에 들어가지 말 것, 옷을 빨거나 이를 잡지 말 것, 발가벗고 욕실 안을 왔다 갔다 하지 말 것, 사용할 도구는 반드시 제자리에 둘 것, 항상 깨끗하게 사용할 것, 벗은 승복 등은 잘 정리해 둘 것 등의 규칙이 있었다.

그렇다면 목욕시간의 제한은 없었는가? 수백 명의 대중이 목욕을 하는데 시간 제한이 없을 수 없다. 우선 욕실에서는 절대 침묵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타판(打板) 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졸지어 대기하고 있다가 욕주(浴主)가 판을 한 번 치면 욕실에 들어가고, 두 번 치면 목욕을 시작하고 세 번 치면 열른 마무리하고 나와야 한다.

욕실을 담당하는 책임자(소임)를 '지욕(知浴)' 또는 '욕주(浴主)'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욕두(浴頭)'라고 하는데 욕주는 지욕 밑에서 욕실의 일을 돕는 소임이다. 욕실 소임자들은 목욕하기 하루 전에 욕실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리고 목욕이 끝나면 역시 깨끗하게 청소해 둔다.

지난 가을 일본 교토(京都)에 갔을 때 임제종 총본산인 묘심사에 있는 약 400년 된 욕실(浴室)을 본 적이 있었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욕실(浴室)이라는 편액이 붙어 있었다. 관람료 500엔을 내고 내부까지 보았는데, 한 번에 약 20명 정도가 목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대에는 욕실이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궁이에 화(火)를 설치하여 온수(溫水)를 공급했고 욕실 한쪽에는 탈의실 겸 휴게실 같은 곳이 있었다. 그리고 몸을 씻을 때는 큰 통에 담겨 있는 온수를 바가지로 떠서 쓰게 되어 있었다. 화탕(火湯) 바로 위에는 사우나 방이 있었는데, 욕탕 속에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몸을 뜨끈하게 했던 것이다. 송대 선종사원의 욕실에도 사우나방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조금 궁금하다.

동사(東司, 화장실)

동사(東司)는 변소(便所)·축간(廁間)·화장실로서 7당 가람 가운데 하나이다. 위치는 산문 좌측에 있다. 또 동쪽 변소, 서쪽 변소라는 뜻에서 동정(東淨)·서정(西淨)이라고도 한다. 역설적이지만 '정(淨)'자를 붙여서 항상 청결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변소를 처음에는 풍쪽에 세웠는데 그것은 더러움을 제거하는 제명왕(除穢明王)이 동쪽에 있으면서 불법을 호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대중이 수행하다보니 서쪽에도 변소를 세워 '서정(西淨)'이라고 한 것이다. 천동사와 영은사 가람배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원정규>에서는 화장실 사용에 관해 별도의 장을 만들어 청결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선암사 뒷간.

수행만큼 청결 대단히 중시

日 임제종 동복사 400년 된 욕실 중요문화재로 보존

후대에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동사(東司)로 통일하고 있다.

또 동사를 '설은(雪隱)'이라고도 한다. 영은사 정두로(淨頭, 변소 소임자의 거처) 편액을 '설은(雪隱)'이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항상 더러운 곳을 드러내지 않게 하고 눈처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다. '일체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一切唯心造)'고 한다면 설은(雪隱)은 인식을 바꾸는데 더 없이 좋은 말이다.

설은(雪隱)에 대한 일화는 많다. '중국의 선승 설봉의존(822-908)이 매일같이 스스로 변소를 청소하다가 오도(悟道)했기 때문에', 또는 '설두화상(雪寶, 980-1052)이 오래도록 정두(淨頭, 또는 持淨이라고도 함) 소임을 맡아 변소를 깨끗이 한 이후 설은(雪隱)이라는 미칭(美稱)이 생기게 되었다' 등등.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정두 소임은 모두가 꺼려한다. 사람의 하급 소임 가운데서도 가장 맡기 싫어하는 소임이 정두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설봉스님과 설두화상은 스스로 그 소임을 맡았던 것이다. 간화선의 대성자 대혜선사(1089-1163)도 깨닫기 이전 자청해서 정두 소임을 9개월이나 맡았다. 스스로 뒷간 청소를 맡는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성(聖)이다. 간혹 주지가 마음을 좀 수행시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이 소임을 맡기도 했는데, 염정(染淨)의 분별심을 버리는 데는 제격일 것이다.

<선원정규> 6권 대소변리(大小便利, 변소 사용법) 장에는 화장실 사용법과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천동사에 유학했던 영평도견(永平道元, 1200-1253)은 <정법안장> 7권 세정(洗淨)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사에 갈 때는 반드시 수건을 가지고 가라. 편삼(偏衫, 중국 스님들이 입는 장삼 같은 겹옷)을 벗어서 수건과 함께 동사 밖에 있는 횃대(=衣架)에 건 다음, 정통(淨桶, 뒤를 씻는 물통)에 물을 담아 가지고 들어가라. 대변을 다 본 다음에는 앞에 있는 막대기로 뒤를 닦아낸다. 다시 물로 항문을 깨끗하게 씻는다. 동사에서 나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먼저 손가락으로 재(灰)를 조금 퍼서 물과 섞어서 기왓장

에 문질러 세 번 씻는다. 다음에는 흙에 물을 조금 섞어 세 번 씻는다. 그 다음에는 조협주두(皂莢藻豆, 세정제, 해설 잡곡)를 쓰되 팔꿈치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재로 3번, 흙으로 3번, 조두로 한 번 모두 7번 씻는다. 그 다음에는 양치질을 하라."

주의사항으로는 번기 양쪽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거거나 웃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코를 풀거나 침을 뱉어서도 안 되고, 막대기로 바닥을 그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뒤를 씻을 때는 더운 물로 씻지 말라는 것이다. 오래 되면 향문이 탈장, 출혈하는 병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동사에 갈 때는 미리 가라는 것이다. 선원의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상황이 급박해진 뒤에 가다가 보행의 틈바구니를 타고 방어벽이 터지는 날에는 그 누구도 사체를 감쌀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용변을 본 후에 손을 씻지 않고 불전이나 법당, 승당 등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선원정규> 대소변리 장은 1쪽 정도이지만 <정법안장>에는 무려 9쪽이나 된다. 그 내용을 대폭 줄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세한 지 알만하다. 위생 관념이 철저했고 청결을 대단히 중시했는데, 그것은 마음을 청정히 하는 수행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변소에서 외우는 입축오주(入廁五呪, 다섯 개의 주문)도 있다.

중국 남부에서는 선종사원만이 아니라 일반에서도 화장실을 '동사'라고 부른다. <대한화사전>에는 '촉간의 귀신을 등사(騰司)라고 한다. 동사(東司)는 그 전와(轉司)다'라고 밝히고 있다. 선종사원도 대부분 남쪽 즉 강남지역에서 번창했기 때문에 동사라고 쓴 것 같다.

지난해 교토(京都) 선종사원을 여행할 때 임제종 대본산인 동복사를 갔는데, 거기에는 중요문화재로 400년 된 동사(東司)가 있었다. 400년 된 욕실을 보고서 놀랐는데, 동사를 보고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지간하면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판에 400년 된 화장실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들의 정신문화가 훌륭했다.

근래 우리나라 사찰에는 화장실 편액을 '해우소

(解憂所)라고 쓴 곳이 많다.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인데 참 좋은 이름이다. 온 몸이 뒤틀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우소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일시에 해소시켜 주는 곳이다. 처음 해우소라고 쓴 본은 근현대 고승으로서 통도사 극락암에 계셨던 경봉(1892-1982)스님이라고 한다. 이것은 동국대 도서관에 근무했던 이철교 선생이 직접 경봉스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해우소는 말은 내(경봉)가 처음 썼다'라고 말했던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으니 오늘 하루는 향기 나는 날이다.

오래된 해우소는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영월 보덕사 해우소다. 사찰의 화장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화장실인데 1882년에 지어졌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선암사, 통도사 극락암 해우소도 유명하다. 우리나라 사찰 해우소는 보통 2층으로 짓는다. 높아서 2층에서 대변을 하면 한참 있어야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화장실 편액을 중국 선종사찰과 같이 '동사(東司)'라고 붙인 곳은 봉암사 선원이 유일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포살(佈薩)

빠알리어로는 우포사타(uposatha)라고 하는데, 출가 수행자들(스님)이 보름마다(15일과 그믐날) 한 번씩 모여서 <범망경> 등 계경(戒經)을 강독하며, 그리고 보름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여 선(善)을 기르고 악(惡)을 소멸시키는 의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포살이 전해 오지 않아서 모르는 이들이 많다. 1968년 해인총림에서 부활시켜서 실시하고 있다.

*조협주두(皂莢藻豆)

조협(皂莢)은 쥐엄나무 열매. 콩(豆)과에 속함. 씨는 약용으로 쓴다고 함. 조두(藻豆)는 콩가루에 약물을 섞어서 만든 비누, 혹은 세정제(대한화사전 참조).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습니다.
-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궁예양초

① 밀납 아랑 연꽃 양초 7.0 ㄴ 33cm	② 밀납 1호 그림 양초 5.9 ㄴ 18cm	③ 약봉 1호 그림 양초 5.9 ㄴ 18cm
④ 약봉 아랑 연꽃 양초 7.0 ㄴ 33cm	⑤ 밀납 PC양초 5.5 ㄴ 4cm(연사신 약 8시간)	⑥ 한봉 금강정 세트 5.9 ㄴ 18cm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② 밀납초 연봉 연가동	③ 밀납초 돈타래	④ 밀납초 2호
⑤ 밀납초 1호	⑥ 밀납초 1호	⑦ 밀납초 2호	⑧ 밀납초 3호
⑨ 밀납초 4호	⑩ 밀납초 4호 반야심경	⑪ 밀납초 5호	⑫ 밀납초 5호 반야심경
⑬ 밀납초 6호	⑭ 밀납초 6호 반야심경	⑮ 밀납초 7호	⑯ 밀납초 7호 반야심경
⑰ 밀납초 8호	⑱ 밀납초 8호 반야심경	⑲ 밀납초 9호	⑳ 밀납초 9호 반야심경
㉑ 밀납초 10호	㉒ 밀납초 10호 반야심경	㉓ 밀납초 11호	㉔ 밀납초 11호 반야심경
㉕ 밀납초 12호	㉖ 밀납초 12호 반야심경	㉗ 밀납초 13호	㉘ 밀납초 13호 반야심경
㉙ 밀납초 14호	㉚ 밀납초 14호 반야심경	㉛ 밀납초 15호	㉜ 밀납초 15호 반야심경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